

옥천 서산성의 현황과 정밀지표조사 성과

서문영*

-
- I. 머리말
 - II. 위치와 환경
 - III. 관련 자료 검토
 - IV. 정밀지표조사의 성과
 - V. 맺음말
-

【국문초록】

옥천 서산성은 ‘관산성 전투(554)’와 연관되는 ‘관산성’의 비정지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옥천 분지의 관문으로서 고대 옥천 지역 핵심 방어 산성으로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옥천 서산성의 위치와 환경을 알아보고, 사료와 지리지 등을 검토하여 옥천 서산성 일대가 관산성으로 비정되는 정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후 정밀지표조사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옥천 서산성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고학적 성과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서산성의 둘레는 약 1,025m이고 성내 면적은 31,727㎡이다. 성벽은 모두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40m 간격으로 단면측점을 설정하여 육안으로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확인되는 성벽의 단면형태를 파악하였다.

성내 시설로는 문지 3곳을 추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건물지 6곳, 치성 1곳, 집수시설 1곳을 추정하였다. 성내시설은 가시권 분석, 경사방향분석 등을 통하여 산성의 일반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가시권 분석을 통해 서산성의 감제권이 옥천분지를 향하고 있으며, 주변 500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양리 토성, 삼거리 토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천 서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은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기와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백자편과 기와편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확인되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대조해 보았을 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이 운영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자료이다. 성내 평탄지와 규모를 고려하면 고대에는 치소성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이번 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옥천, 서산성, 관산성, 관산성 전투, 성곽, 신라, 백제, 성왕, 추풍령로

I. 머리말

옥천 서산성은 옥천 분지의 관문으로 고대 옥천지역의 핵심 관방유적으로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옥천 서산성은 554년에 신라와 백제가 충돌한 관산성 전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관산성 전투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554년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백제와 신라의 전투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같은 해 12월에 관산성 전투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어 연구자들은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등의 기록을 통해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비롯하여 전황과 결과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관산성 전투의 전개과정과 전황 등은 연구자들마다 사료의 취신문제로 인한 약간의 견해 차이 또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대체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보이지 않는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백제는 관산성 전투 이후 성왕이 전사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였고, 신라는 관산성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한강 유역을 공고히 차지하여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관산성 전투는 고대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자들은 대체로 신라와 백제 양국의 최전선 지역인 옥천지역을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문안식, 2006 ; 양기석, 2009 ; 차용걸 외, 2009 ; 김병남 외 2010 등).

특히 옥천지역의 성곽유적 중에서도 옥천분지의 관문성인 옥천 서산성이 관산성 전투의 직접적인 장소로 주목받아 왔으나 이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종합지표조사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차용걸 외, 2003). 그러나 2023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으로 옥천 서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진행되어 산성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옥천 서산성의 위치와 환경을 분석하고, 사료와 지리지 등을 검토하여 옥천 서산성 일대가 관산성으로 비정되는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정밀지표조사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옥천 서산성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고학적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위치와 환경

1. 입지

옥천 서산성은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산1-1임 외 6필지)·삼양리(산5임 외5필지)·문정리(산24임 외 3필지) 일원에 위치한다. 옥천 서산성 중심부의 수리적 위치는 북위 $36^{\circ} 18' 47.762''$, 동경 $127^{\circ} 33' 53.512''$ 이며, 세부적인 좌표는(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1] 옥천읍과 옥천 서산성 항공사진(서·동)

옥천 서산성 주변의 수계는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소옥천(서화천)이 북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금성산에서 발원한 소옥천은 충청남도 하천명으로는 추풍천으로 1995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준용하천이다. 추풍천은 아랫못골 부근에 이르기까지 계곡류를 이루며 북류하다가 목골저수지를 지나면

서 유로를 형성한다. 이후 북동류의 유향으로 완만하게 유로를 따라 흐른 추풍천은 충청북도계에서 하천명이 소옥천으로 바뀌며 도덕봉의 협곡을 사행으로 흐르다가 소옥천의 제1지류인 금산천과 합류한 후 계속 북동류 하다가 금구천 합류 부근에서 유향을 북서로 변경한 후 대청호에 유입되고 있다. 소옥천은 유역면적 176.47km², 유로연장 29.00 km로 유역형상은 수지상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고 동경 127° 26' 30" ~ 127° 33' 30", 북위 36° 09' 30" ~ 36° 21' 30" 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상경사는 하류부는 1/236 ~ 1/287, 상류부는 1/488 ~ 1/506으로 비교적 완만하며, 하상에는 모래, 자갈, 호박돌이 혼재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7, 24쪽).

[표 1] 옥천 서산성의 세부 좌표

구분	세부 좌표	
	X	Y
중심부	250728,3160	412953,4790
동단	250917,1731	413041,8757
서단	250577,7845	412829,1421
북단	250641,2657	413030,9247
좌표계	투영법:TM, 타원체:GRS80 투영원점:중부원점, EPSG:5186	

소옥천 주변에서 확인된 옥천지역의 성곽유적으로는 식장산(대전광역시와 옥천군의 경계) 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국사봉 망루지·성치산성·매봉산 보루·동평산성·용봉산성·삼성산성·서산성·삼양리 토성·삼거리 토성 등이 있다. 특히 소옥천의 서안에 위치한 국사봉 망루지·성치산성·매봉산보루 등은 남쪽의 금산방향과 서쪽의 대전광역시 방향을 감제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소옥천의 동안에 위치한 동평산성·용봉산성·삼성산성·서산성·삼양리 토성·삼거리 토성 등은 옥천읍 서쪽과 북서쪽을 감싸고 있으며 지형상 옥천분지 내의 옥천읍을 방비하기에 유리한 위치



[그림 2] 옥천읍과 수치표고 및 수계도

구릉성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서산성은 북동쪽의 국수봉에서 내려오는 산지의 남서쪽에 해당하며, 소옥천을 경계로 삼성산성과 삼거리 토성이 위치한 용봉으로 이어진다. 용봉은 옥천분지의 서쪽 경계에 해당하는데, 남쪽으로는 도덕봉(도덕봉산성)으로 이어진다. 도덕봉의 동쪽으로는 금강이 굽이치며 북류하여 경계를 이루며, 지양리 산성의 주변으로 험준한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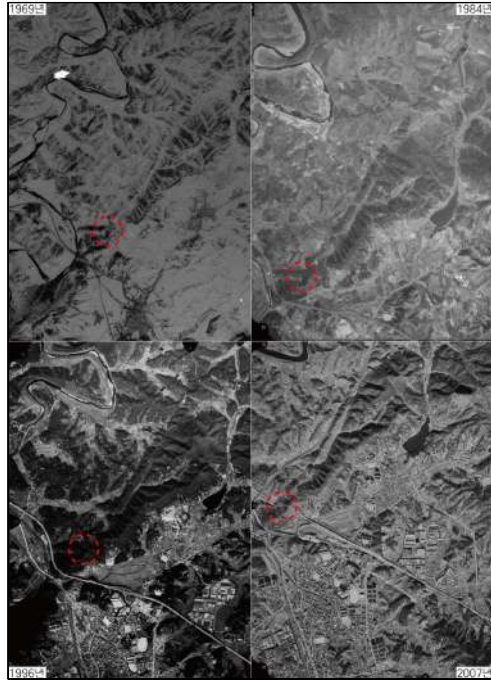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는 대규모 훼손이나 개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으로 볼 때 경작에 의한 산발적인 훼손이나 풍수해와 관련된 자연적 훼손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까지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경부고속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사면부의 훼손이 특히 눈에 띈다. 1990년대에는 옥천읍 죽향리(구읍) 일대에서 현재의 옥천읍으로 도심이 옮겨진 것이 확인되는데, 서산성과 그 일대에도 1980년대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건축물들이 서산성의 주변에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서산성의 지하로 경부고속도로 터널이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구릉들이 개발로 인하여 사라진 것도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2000년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옥천읍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개발

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서산성·삼양리 토성·삼거리 토성은 소옥천과 옥천분지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금구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형상 옥천분지의 북서쪽 통로에 해당한다.

옥천 서산성 주변의 지형은 비교적 험준한

로 인한 지형훼손이 관찰된다.

현재 옥천 서산성 주변은 경작지와 민가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산성의 지하로는 북서서-남동동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산성 터널이 개설되어 있다. 서산성과 삼양리 토성은 경부고속도로와 옥천나들목의 건설로 인하여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이 사유지로 경작과 관련된 지형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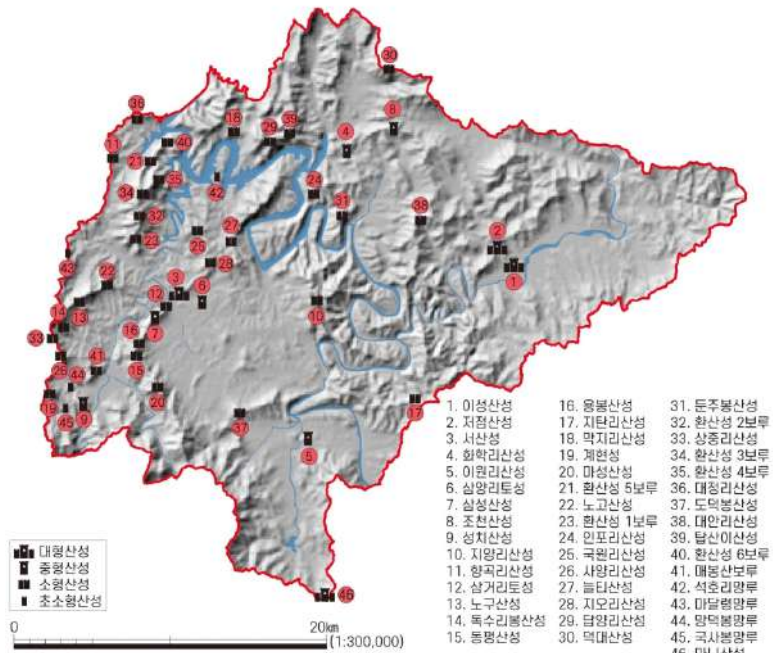
[그림 3] 과거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2. 주변 유적 현황

옥천지역에는 현재까지 모두 46개소의 성곽유적(김봉근, 2023)이 보고되었다. 이들 성곽유적은 사료와 지리지 등의 기록을 통해 ‘백제’ 또는 ‘신라’가 대부분의 성곽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옥천지역의 산성은 규모와 입지에 따라 크게 산성과 보루, 망루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조사된 현황을 (그림 4)에 정리하였다(김봉근, 2023, 93쪽).

옥천지역의 산성들은 고대의 교통로를 따라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



[그림 4] 옥천지역 성곽유적 현황도

정되고 있다. 특히 대전, 청주 방면에서 옥천으로 넘어오는 마달령과 곤룡재가 조망되는 삼성산 주변의 산성과 옥천읍내에서 대전, 금산방면으로 사목재, 곤룡재가 조망되는 식장산 주변의 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교통로는 모두 금강을 따라 부여로 갈 수 있는 길로 백제군의 진격로로 추정되기도 한다.(차용걸 외, 2003,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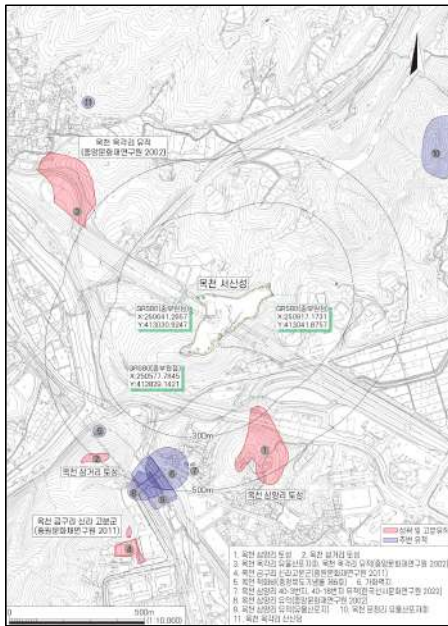
한편, 신라의 옥천지역 진출 추정 경로는 상주-화령-보은(삼년산성, 470년)-옥천 청산면(굴산성, 486년 이전)-옥천 이원면(사시성, 474년)-옥천읍(관산성, 554년 이전)의 화령로와 김천-추풍령-영동 황간(좌라성 474년)-옥천 청산(굴산성, 486년 이전)-옥천 이원면(사시성, 474년)-옥천읍(관산성, 554년 이전)의 추풍령로가 대표적이다(김봉근 외, 2022, 71쪽).

이상을 바탕으로 신라와 백제를 잇는 교통로를 복원하면, 신라왕경-상주-보은(삼년산성)-옥천 청성면(굴산성)-옥천 이원면-금산 추부면-금산 진산면-논산 연산면(황산벌)-부여 사비성, 신라왕경-상주-보은(삼년산성)-옥천 청성면(굴산성)-옥천 군서면(환산성)-대전(우술성)-공주 웅진성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들 교통로에 따르면 옥천지역은 백제와 신라가 서로의 왕경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장소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부지 내 유적(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0)에서 7세기 무렵 개설된 신라 관도로 추정되는 도로유구가 조사된 바 있어 주목된다. 이 도로유적은 7세기 통일전쟁 당시 신라의 중요 군량 운송로인 웅진도의 일부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로유구의 기저부에서 수습된 시료의 분석 결과, 초축시기는 3~4세기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도로는 신라의 옥천지역 진출과 관련된

교통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고자료로 관산성 전투의 전황을 물질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굴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성산성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조사에서 신라 목곽고가 확인된 바(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0)있어 앞으로의 조사성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옥천지역의 성곽 유적에 대한 현재까지의



[그림 5] 옥천 서산성과 주변 지역 수치지형도

조사현황을 보면 종합지표조사를 통하여 옥천지역에 성곽의 분포현황은 파악되었으나 발굴조사로 이어진 유적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성곽의 주변에 분포하는 고분이 대체로 6세기 중반 이후의 7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편년(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되는 것을 보면 6세기 중반에 일어난 관산성 전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관산성 전투와 관산성의 실체에 더 가까이 근접하기 위해서는 옥천지역의 성곽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옥천 서산성의 주변 유적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문화재의 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에 청주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문화유적분포지도-옥천군-』를 비롯하여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다.

특히 옥천 서산성은 옥천지역을 대표하는 성곽유적으로 주변의 유적 중 성곽유적과 관련된 유적은 따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주변 유적의 현황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제2항 관련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옥천 서산성의 반경 500m 이내의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반경 500m 바깥의 유적 중에서는 성곽유적과 관련이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옥천 서산성 주변에 분포하는 비지정 문화재의 위치와 이격거리는 (표 2)에 정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그림 5)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나열하였다.

옥천 서산성 주변으로 성곽유적과 관련이 있는 유적은 5개소가 확인되었다. 5개소의 유적은 옥천 삼양리 토성, 옥천 삼거리 토성, 옥천 옥각리 유적(고분군), 옥천 금구리 고분군 등으로 파악된다. 옥천 서산성 주변의 성곽은 모두 반경 500m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옥천 옥각리 유적, 옥천 금구리 신라 고분군과 같은 고분군이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정문화재는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성

과 관련 유적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가화역지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정황으로 볼 때, 고지도에 등장하는 가화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조사된 옥천 삼양리 40-3번지, 40-18번지 유적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가마로 추정되는 수혈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표 2]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반경 500m 이내)

번호	유적명	소재지	유적분류	이격거리(m)	비고
1	옥천 삼양리 토성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성곽	275	성곽 관련 유적
2	옥천 삼거리 토성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성곽	478	
3	옥천 옥각리 유물산포지②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산61-1번지 일원	유물 산포지	498	
	옥천 옥각리 유적		고분군		
4	옥천 금구리 신라 고분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224번지 일원	고분군	670	
5	옥천 척화비 (충청북도기념물 제6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산4-4	비갈	410	지정문화재
6	가화역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양지가화	역원	359	문화유적 분포지도
7	옥천 삼양리 40-3번지, 40-18번지 유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40-3, 40-18번지	생산유적	388	발굴조사 유적
8	옥천 삼양리 유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0번지 일원	건물지 와요지	448	발굴조사 유적
9	옥천 삼양리 유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유물 산포지	420	문화유적 분포지도
10	옥천 문정리 유물산포지③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산21-1번지 일원	유물 산포지	747	문화유적 분포지도
11	옥천 옥각리 산신당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옥각마을	제의유적	845	문화유적 분포지도

Ⅲ. 관련 자료 검토

1. 문헌검토

[표 3] 사료와 지리지의 지명 관련 기록

구분	권명(연도)	내용	지명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성왕 (554년)	32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포악한 병사들에게 살해되어 돌아가셨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	*구천 : 구진베루 (차용걸 외, 2003)
	권43 열전3 김유신 (678년)	……옛날에 백제 명농왕이 굴리산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는데, 유신의 할아버지 무력각간이 장군이 되어 역공을 펼쳐 승세를 타고 그 왕 및 재상(宰相) 4인과 병사들을 사로잡음으로써 적을 물러나게 하였다. ……	고리산
	권34 잡지3 지리 신라 (742~765)	管城郡은 본래 古尸山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영현이 둘이다.	관성군 고사산군
일본서기	권19 흥명천황 (554년)	…… 여창이 “늙었구려. 어찌 겁내시오 우리는 대국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겁낼 것이 있겠소”라 하고,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久陀牟羅에 보루를 쌓았다. 그 아버지 명왕(성왕)은 여창이 행군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였다.……	*구타모라 ① 옥천설 ② 영동설 (신라 길동군) ③ 안동설 (신라 고타아군) ④ 거창설 (신라 거열군) (차용걸 외, 2003)
고려사	권57 지10 지리 경산부 (1313)	관성현은 본래 신라의 고사산군으로, 경덕왕 때 관성군으로 고쳤다. … (중략) …충선왕 5년(1313)에 지옥주사로 승격시키고, 경산부에 소속된 이산·안음·양산의 세 현을 <옥주>에 소속시켰다.	관성군 고사산군 옥주

<p>세종실록</p>	<p>권149 지리지 (1454)</p>	<p>본래 신라의 고사산군인데, 경덕왕이 관성군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 9년에 경산부 임내에붙이었다가, 인종 21년 계해에 비로소 현령을 두었다. 충선왕 5년 계축에 【곧 송나라 인종 황경 2년.】 지옥주사로 승격하고, 경산부의 임내인이산·안읍·양산 등 3현을 갈라서 이에 붙였으며, 본조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沃川郡으로 고쳤다. …(중략)… 성황당산 석성은 군의 서쪽 4리에 있으며, 【둘레가 3백 96보이며, 험조하다. 성 안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가뭄을 만나면 곧 마르며, 군창이 있다.】 …(중략)… 봉화가 2곳이니, 월이산은 이산현동쪽에 있고, 【남쪽으로 영동 박달산에, 북쪽으로 본군환산에 응한다.】 환산은 군의 북쪽에 있다. 【서쪽으로 회덕 계족산에 응한다.】</p>	<p>관성군 고사산군 옥주 옥천군 성황당산 석성 환산</p>
<p>산중동국여지승람</p>	<p>권15 옥천군 (1530)</p>	<p>【군명 고사산, 관성, 옥주 【산천三城山】을 서쪽 5리에 있다. 옛 성의 남은 터가 있다. 환산고를 북쪽 16리에 있다. 【성곽 西山城 고을 서쪽 5리에 있다.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2천 1백 41자, 높이가 6자로 군창이 있다.</p>	<p>관성군 고사산군 옥주 삼성산 환산 서산</p>
<p>여지도서</p>	<p>권15 옥천군 (1756)</p>	<p>【군명 고사산, 관성, 옥주, 옥천.</p>	<p>관성군 고사산군 옥주 옥천군</p>
<p>충청도읍지 호서읍지 충청북도각군읍지 옥천군읍지</p>	<p>1800년대</p>	<p>【건치연혁】본래 신라의 고사산군이었는데 경덕왕이 관성군(管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때에는 경산부에 속하였으며 인종때에 현령을두었고, 명종 12년에 아전과 백성들이 현령인 홍언을 붙잡아 가두었으므로 유사가 왕에게 아뢰어 그 관호를 박탈하였다. 충선왕 5년에 지옥주사로 승격시켜 경산부에 소속된 이산·안읍·양산의 3개현을나누어서 속현으로 하였다. 본조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경상도로부터 본도에 소속시켰다.</p>	<p>관성군 고사산군 옥주</p>

대동지지	1865년	[연혁] 본래 신라의 고시산군이었는데 경덕왕16년(757)에 관성군으로 고쳐 …(중략)… 충선왕5년에 지옥주사로 승격시켜 경산부에 소속된 이산·안읍·양산의 3개 현을 나누어서 속현으로 하였다. 본조태종 13년에 옥천군으로 고쳤다. 관성군 때의 옛터는 현재 치소사쪽 15 리에 있는데, 지금은 (植栗坪)이라 부른다.	관성군 고시산군 옥주 옥천군 식률평
------	-------	---	---------------------------------

『삼국사기』에 보이는 옥천군과 관련된 지명은 고시산군, 소리산현, 아동호현이 있다. 이들 지명은 경덕왕대에 이르러 각각 관성군, 이산현, 안정현으로 불리게 되며 현재의 위치를 보면 관성군은 옥천군 옥천읍, 소리산현은 옥천군 이원면, 안정현은 옥천군 안내면에 해당된다.

『고려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고려 충선왕 5년(1313)에는 관성군이 옥주로 불리었다는 기사를 통해 현재의 지명과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읍현, 이산현, 양산현(영동군 양산면)이 관성군의 영현이 된 기록을 통해 관성군의 중심지가 여러 차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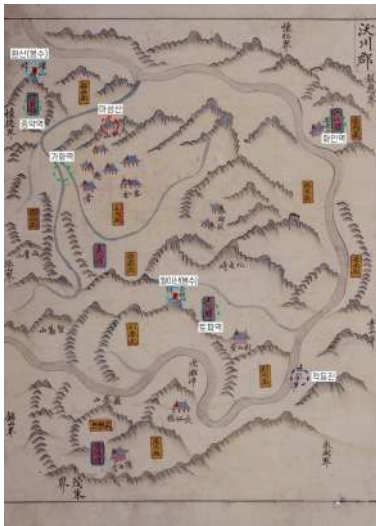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지리지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군명]에 옥천의 군명을 고시산, 관성, 옥주 등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곽]에는 서산성이 언급되어 있어 1530년대에는 성곽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산천]에 등장하는 삼성산은 옛 성의 남은 터가 있다고 되어 있어 이미 16세기 무렵에는 성곽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산은 [산천]과 [봉수]에 함께 등장하는데, 환산 봉수가 회덕현의 계족산에 호응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대전방면으로 교통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적]에 관성향은 관성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겠지만 식률평이라 일컫는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구례성의 위치비정(양주동, 1965)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 6] 팔도군현지도(1724-1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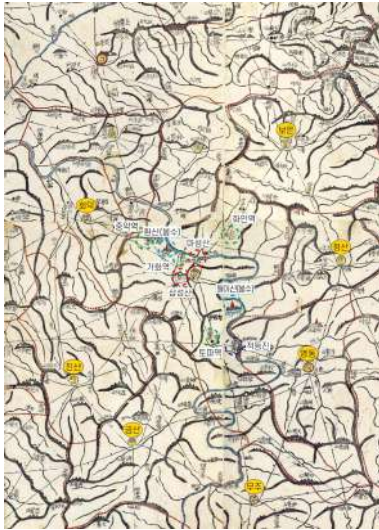
[그림 7] 해동지도(1724-1776)



[그림 8] 광여도(1737-1776)



[그림 9] 여지도서(1757-1765)



[그림 10] 대동여지도(1861)



[그림 11] 1872년 지방지도

이후에 발간된 조선시대의 읍지에는 대체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고지도는 대부분 18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도에는 당시의 교통로와 산천, 봉수, 지명 등을 수록하고 있어 옥천군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지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과 마성산 사이에는 가화역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점은 영동군과 연결되는 길과 보은군과 연결되는 길이 만나는 지역이다. 이 지점에서 두 교통로가 만나 서쪽으로 회덕으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환산봉수와 증약역이 표시되어 있다.

영동군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는 토파역, 월이산봉수, 적등진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토파역 부근에서 무주로 통하는 교통로가 분기한다. 보은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는 화인역이 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역원진 또는 봉수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동여지도에는 옥천에서 남쪽으로 삼성산을 지나 금산으로 이어지는 길, 소옥

천 방향에서 분기하여 진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표시되어 있어 고지도 상의 옥천을 중심으로는 5개의 교통로가 교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옥천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회덕, 회인, 보은, 청산, 영동, 금산, 진산, 연산(논산)으로 연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교통로와 교통로 주변에 설치된 봉수와 역, 진 등의 존재를 통해 이 지역이 관산성 전투 당시 백제군과 신라군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지명 · 민속분야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관산성’은 지리지와 고지도 등 문헌에서 확인되는 옥천군의 연혁을 통해 지금의 옥천지역 어딘가로 추정할 수 있다. 옥천지역에 산재하는 다수의 성곽유적의 존재도 ‘관산성’이 옥천지역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의 정황증거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성곽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옥천지역은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에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의 심장부로 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만하는 지역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옥천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 도로 등 고고학 자료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관산성은 경주에서 추풍령을 넘어 백제의 왕도로 이어지는 교통로이자 상주에서 화령을 넘어 백제의 왕도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의 중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 기록된 삼년산군(보은)에서 출정하여 성왕의 목을 벤 고간 도도의 행적으로 볼 때, 보은 지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왕도에서 금강 상류로 나아가 소백산맥을 넘어 동맹관계인 낙동강 유역의 가야로 통하는 교통로로 좁혀진다. 따

라서 이 지역을 확보해야만 가야지역을 세력권에 두고 신라를 압박할 수 있는 요충지인 것이다(차용걸 외, 2003, 56쪽).

관산성 전투를 둘러싼 모든 정황은 옥천을 가리키고 있으나 여전히 관산성을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곽은 45개 성곽유적 중에 단 1개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초축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치열했던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흔적이 조사된 사례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03년에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소에서 시행한 종합지표조사에는 삼양리토성, 서산성, 삼성산성이 가장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 조사에서는 관산성과 관련된 문헌기록과 관산성 전투의 전개양상 등과 함께 옥천지역에 남아있는 관산성 전투와 관련될 수 있는 지명과 전설도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명과 민속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 고니산 【산】 → 고리산
- 고리산[환산, 고니산] 【산】 군북면 향곡리, 추소리, 증약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581m. 중턱 바위에 고리자국이 있는데, 옛날에 이 곳이 바다가 되어서 배를 매었다 함.
- 서화천[큰내] 【내】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옥천군 군서면 곧 서화의 동부와 군북면의 중심부를 뚫고 이평리에 이르러 금강으로 들어감.
- 소옥천-천 【내】 옥천읍 가풍리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옥천읍 중심부를 뚫고 군서면 서화천으로 들어감.
- 환산 【산】 → 고리산
- 군전리) [군전동] 【마을】 월전리에서 제일 큰 마을. 근처에 “장군대좌형”의 명당이 있으며 거기에 상대하여 이 곳은 군전에 해당한다 함.
- 말무덤이-고개 【고개】 청중말 남쪽에 있는 고개. 말무덤이 있음.
- 진터-별1 【마을】 청중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
- 진터-별2 【들】 진터별에 있는 들. 동학란 때 이곳에다 진을 쳤었다 함.

군북면과 군서면 주변의 지명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고리산, 환산 등의 지명이다. 서화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에는 보이지 않는 지명으로 조선후기에 불리고 기록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화천이 흐르는 월전리에 구진배루라는 지명에서 구진은 구천(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기록된 성왕의 전사지)의 변형으로 추정되며 배루는 배랑의 변형으로 성왕의 전사지와 가장 가까운 이름으로 추정된다.(차용걸 외, 2003, 67쪽)

옥천 지역에서 고려시대 이전을 소재로 한 전설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지 않다. 전설의 유형은 남매축성설화가 청성면의 성터에 남아 있으며, 노고성 관련 전승인 할미성과 할배성의 전승은 내용을 잃은 채로 이백리 노고산성터와 고리산 사이와 그 주변에 분포하며, 이러한 양상은 옛 전쟁터인 충북의 음성군 음성읍의 수정산성에서 할배성과 할미성, 영동군 지역, 보은군 지역의 노고성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문경시의 고부성과 고모성의 관계와 통하고 있다. 즉, 협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산성이 있을 경우 하나는(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것) 노고할미, 다른 쪽에 마주보며 있는 성(비교적 높은 위치)을 할배성이라 하여 음양으로 대조시키며, 때로는 국경선으로 두 나라 사이 싸움의 전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차용걸 외, 2003, 67쪽).

옥천 지역의 고대 전쟁과 관련된 전설 중 관산성 전투와 연관이 보이는 전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차용걸 외, 2003, 68-69쪽).

○ **대골**

옥천읍 대천리를 대골이라 한다. 신라의 장수 김무력이 백제와 싸울적에, 관산성을 향하여 대군을 이끌고 행군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이 곳에 전군을 집합시켜 진을 치고, 여러 날 머물면서 군력을 축적시키고 군비를 가다듬은 뒤에 관산성 싸움에 임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 지명이 '대골'이다

○ **청성면의 말채나무와 혈맥이**

옥천군 청성면의 말채나무와 혈맥이 전설은 신라와 백제 사이의 격전지에

염탐을 나선 백제 장수가 돌아오는 길에 이곳 경치의 수려함에 취해 말채를 쫓아 둔 채 신라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그 뒤 말채가 자라 거목이 되니 마을의 부인들이 이곳에 제사를 지내며 자식 낳기를 기원하고 대를 이어서 혈맥이라고 하였다.

말채나무는 말채로 쓰인 나무가 다시 살아서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므로 부인들은 그 말채의 사연과는 상관없이 그 나무를 신비수로 여기고 기원의 대상으로 삼아 자식을 기원하여 자손을 얻어서 대를 잇게 되니 혈맥이라고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신라군을 정탐하러 간 장수가 주변의 경관에 취해 말채를 던지고 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백제 장수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신라군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명과 전설은 오랫동안 전승되며 변형되어 왔기 때문에 관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지역에 남아있는 지명과 주변의 산성, 교통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다만 관산성전투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옥천지역의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과 당시 전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된 후, 지명과 전설 등의 민속자료와 함께 종합적인 고찰이 진행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옥천 서산성 전체 현황도

IV. 정밀지표조사의 성과

1. 전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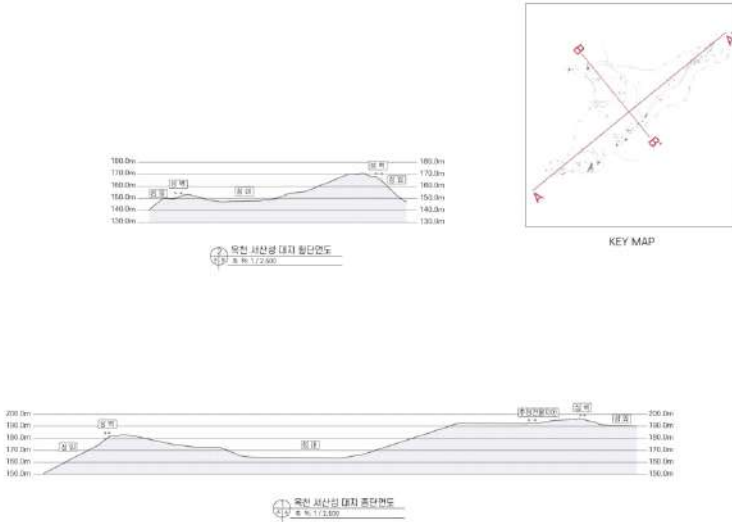
옥천 서산성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사면과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계곡부를 둘러싸고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북서쪽이 돌출된 ‘凸’자 형태로 紗帽峰形의 산성이다. 잔존하는 성벽의 상단 끝부분을 따라 측정한 산성의 둘레는 약 1,025m이고 성내 면적은 31,727㎡이다.

북동쪽과 남서쪽의 봉우리는 각각 해발고도가 197.138m, 183.102m이며,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종단면선을 연결하면 ‘凹’자형으로 중앙부가 함몰된 馬鞍形의 안부가 형성되어 있다. 안부의 해발은 162.2m이다.

횡단면도에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 확인되며, 성내 북서쪽을 중심으로 경사가 완만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단면상에서



[그림 13] 옥천 서산성 항공사진(남동-북서)



[그림 14] 옥천 서산성 동·횡 단면도

확인되는 평탄지는 해발 약 145m 내외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성벽과는 높이 차이는 약 2~5m 정도로 확인되었다.

성벽에 대한 현장조사는 동문지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약 20~40m의 단면측점을 설정한 후 진행하였다. 성내에 대한 현장조사는 동-서방향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단면측점을 기준으로 'ㄱ'자 방향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보로 이동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내 평탄지와 그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유물을 수습하여 평탄지의 성격을 추정하였으며, 문지는 지형과 경사방향, 성벽이 단절된 지점, 현재의 등산로 등을 참고하여 위치를 추정하였다.

성벽은 지표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형태와 잔존상태를 기준으로 남동쪽 성벽 구간(1구간), 남서쪽 성벽 구간(2구간), 북서쪽 성벽 구간(3구간), 북쪽 성벽 구간(4구간)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외성벽은 대부

분 무너진 상태로 경사면의 하단으로 크고 작은 석재가 흩어져 있다. 북쪽 성벽의 일부 구간은 내외협축의 흔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경사가 급한 성의 바깥쪽으로 성벽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흘러내린 상태로 잔존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성내시설은 추정 문지, 추정 치성, 추정 건물지, 추정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문지는 모두 3곳으로 추정하였다. 동쪽 회절부에 위치한 추정 동문지는 문정리 방향으로 연결되는 계곡부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추정 서문지는 서산성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고 완만한 경사면에 조성되었으며, 작은성밑골로 연결된다. 추정 남문지는 성벽이 ‘凹’ 자형으로 뚜렷하게 단절되어 있다. 추정 남문지는 삼양리로 방향의 계곡부와 연결되는데, 이 계곡부를 따라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추정 남문지는 삼양리에서 이곳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추정 남문지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하다가 남쪽으로 회절하는 성벽의 아래쪽을 반드시 지나야만 하기때문에 적을 방어하기에 효율적인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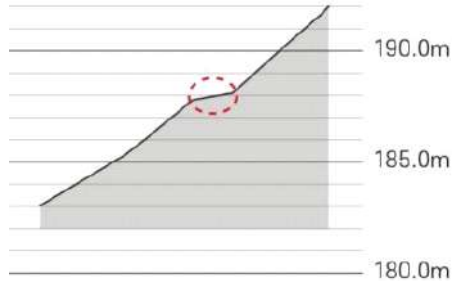
문지 외에도 성내에서 크고 작은 평탄지가 확인되었는데, 평탄지의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과 지형을 고려하여 건물지 6곳, 치성 1곳, 집수시설 1곳을 추정하였다. 특히 추정집수시설은 성내의 평탄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산성이 조선시대까지 군창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 등을 고려해 볼 때, 수혈주거지, 창고, 등의 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다.

2. 성벽구간 현황

성벽은 특별히 단절된 구간 없이 잔존하고 있으나 성 외측의 경사가 급하고, 지하의 터널개설과 경작활동 등으로 대부분이 붕괴된 상태이다. 조사단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성벽의 형태나 잔존양상을 고려하여 크게 네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1) 1구간 : 남동쪽 성벽 구간(단면측점-A~H)

1구간은 남동쪽 성벽구간으로 추정 동문지부터 추정 남문지까지에 해당한다. 1구간 성벽의 진행방향은 추정 동문지에서부터 남쪽으로 진행되다가 남서방향으로 회절한다. 성벽은 남서방향으로 단면측점 B-B'지점을 지나 단면측점



[그림 15] 1구간 성벽 대표 단면도(B-B'지점)

C-C 지점에서 남쪽으로 돌아 지형을 감싸고 남-남서-서 방향으로 돌아 단면측점 E-E'지점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진행하여 추정 남문지에 이른다.

1구간의 성벽은 구릉의 남동사면에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1구간 성벽을 경계로 성내의 경사(13° ~30°)가 성의 바깥(34° ~44°)보다 완만한 편이다. 단면측점 C-C'지점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의 성벽은 2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계단식의 구성을 보인다. 성내부터 1단은 경사도가 낮은 지점이 13° 정도로 매우 완만하며, 단 사이에는 너비 1~2m 정도의 평탄지가 성벽을 따라 확인된다. 성벽과 외곽지역의 경사도는 최대 44°로 매우 가파르다. 단 사이에 조성된 평탄지에서 성내까지의 높이는 약 7m 내외로 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추정 문지에 가까워질수록 약 2m 정도의 높이 차이를 보인다.

2단의 잔존하는 성벽의 외피를 중심으로 석축의 흔적이 관찰되지만 붕괴가 심하여 구조를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벽에 남아있는 석재들은 특별한 가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므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구간 성벽의 높이는 단면측점 A-A'지점 약 3.1m, B-B'지점 약 2.5m, C-C'지점 약 3.6m, D-D'지점 약 4.3m E-E'지점 약 3.0m, F-F'

지점 약 3.5m, G-G'지점 약 4.0m, H-H'지점 약 3.3m로 측정되었다.

1구간은 남동쪽의 옥천방향에서 오르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단면측점 C~E구간이 성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조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특히 이 주변의 계곡부를 따라 오르는 적에 대한 방어에 용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2구간 : 남서쪽 성벽 구간(단면측점-J~R)

2구간은 남서쪽 성벽 구간으로 추정 남문지부터 성곽 서쪽의 회절 부까지에 해당한다. 2구간 성벽의 진행 방향은 추정 남문지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단면측점 J-J'주변에서 남쪽으로 회절하여 서쪽으로 다시 돌아 지형을 감싸고 남-서-북서-서 방향으로 진행된다. 성벽은 단면측점 P-P'지점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진행하여 R-R'지점에서 북동쪽으로 크게 돌아 3구간과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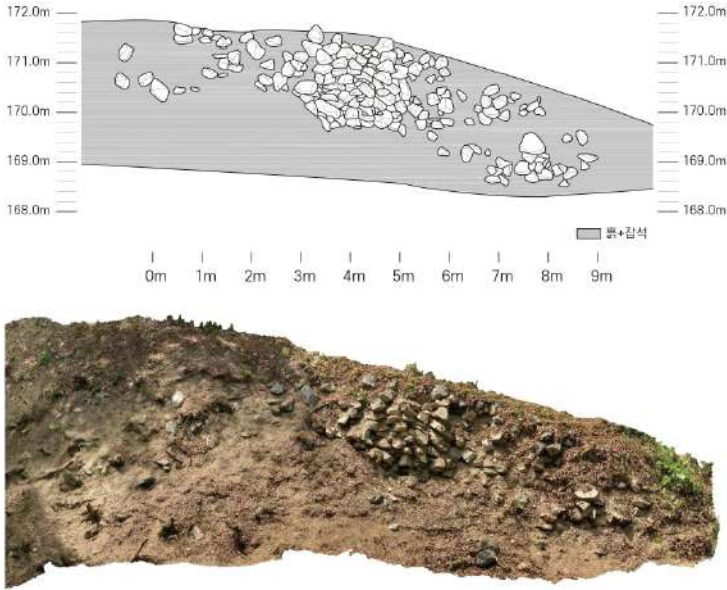
2구간의 성벽은 구릉의 남사면과 남서사면에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구간 성벽 바깥쪽의 경사도는 최대 56° 정도로 매우 가파르다. 성벽의 바깥으로 형성된 가지능선 사이의 협곡은 옥천읍 지역과 연결되나 절벽에 가까운 경사도로 인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정 남문지와 가까운 단면측점 J-J', K-K' 지점은 평면상에서 볼 때 성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1구간의 성벽과 같은 계단식 구성이 확인된다. 이는 1구간의 성벽과 같이 계곡부를 따라 추정 남문지로 진입하는 적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시설의 일부로 추정된다.

2구간 성벽의 성내에는 추정 건물지⑥이 정상부의 평탄면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추정 건물지의 주변으로는 별도로 단을 구성하지 않고 바로 성벽과 이어진다.

추정 건물지⑥의 주변으로는 현대의 참호시설이 약 3개소 정도 확인되며, 그 주변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암반은 화강암 계통의 석재로 성벽의 소재로 사용된 석재와 같은 암질로

판단된다. 암반에는 인위적으로 파쇄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암반의 주변으로 석재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고, 주변의 평탄한 지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채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6] 옥천 서산성 2구간 잔존 성벽 입면도

2구간 성벽의 외피를 중심으로 석축의 흔적이 산발적으로 관찰되지만 붕괴가 심한 편이다. 다만 단면측점 L-L'지점은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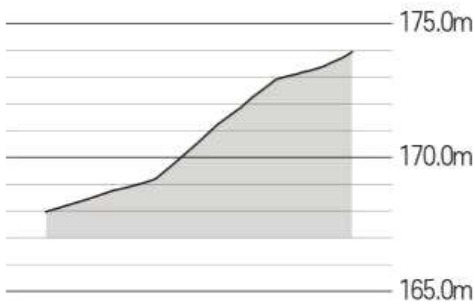
잔존하는 성벽은 크기 50cm내외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은 붕괴되어 흙과 잡석이 섞인 상태로 남아있다.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는 약 3m 정도이며, 지속적인 붕괴와 침식에 의해 성벽의 기저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로는 외벽을 구성하는 석축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주변의 정황과 석재가 단면상 지그재그 형태로 쌓여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뒷채움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2구간 성벽의 높이는 단면측점 J-J'지점 약 1.4m, K-K'지점 약

6.0m, L-L'지점 약 5.1m, M-M'지점 약 3.6m N-N'지점 약 3.6m, P-P' 지점 약 3.6m, Q-Q'지점 약 3.0m, R-R'지점 약 3.4m로 측정되었다.

2구간 성벽의 주변에서는 선문계 기와편을 비롯하여 어골문계 기와 편, 복합문계 기와편, 청자저부편 등이 지표상에서 확인되었다. 수습 된 유물은 모두 잔존하는 성벽의 외벽 주변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유물들은 주로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유물로 산성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여러 차례의 수·개축이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3) 3구간 : 북서쪽 성벽 구간(단면측점-R~a)



[그림 17] 3구간 성벽 대표 단면(T-T'지점)

3구간은 북서쪽 사면 의 성벽구간으로 서산 성의 서쪽 끝단 회절부 부터 추정 건물지⑤까 지에 해당한다. 3구간의 성벽의 진행 방향은 산 성의 서쪽 끝단에서 북 동쪽으로 회절한 후, S-S'지점에서 북동동 방

향으로 능선 정상부를 감싸며 진행된다. 그 후 T-T'지점에서 북서방 향의 계곡부를 돌아 북동방향으로 진행되어 추정 서문지에 이른다. 성벽은 추정 서문지에서 북쪽으로 진행되다가 Z-Z'지점에서 북서쪽으 로 돌아 a-a'지점에서 동쪽으로 회절하며 4구간과 이어진다.

3구간의 성벽은 북서향으로 뺏은 능선과 협곡의 지형을 그대로 이 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면측점 S-S'지점부터 추정서문지 까지 는 성벽 외곽의 경사도가 최대 45° 로 매우 가파른 편이다. 추정 서 문지로 이어진 성벽은 해발고도가 142m 정도로 서산성의 성벽 중 가 장 낮은 계곡부를 형성하고 있다. 성벽은 추정 건물지⑤로 이어지면 서 점차 고도와 경사도가 높아진다.

3구간 성벽 주변의 협곡과 추정 서문지와 이어진 계곡부를 따라 북서쪽으로 내려가면 작은성밑골과 연결되는데, 작은성밑골은 소옥천의 동안에 위치한 완만한 사면부로 현재도 경작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성내로 진입하는 루트 중 가장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옥천을 이용한 수로와 연결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주요한 출입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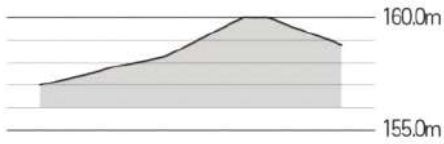
한편 추정 서문지에서 단면측점 a-a'로 이어지는 성벽은 계곡부를 감싸고 돌면서 내만하였다가 다시 돌출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3구간의 성벽은 단면측점 R-R'지점과 a-a'지점이 서쪽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작은성밑골과 추정 서문지를 감싸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단면측점 R-R'지점과 a-a'지점은 3구간 성벽 중 주변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능선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작은성밑골을 지나 추정 서문지로 진입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성벽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3구간 성벽은 주변의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서산성의 전체 현황에서도 해발고도가 낮은 서쪽 방향의 계곡부를 형성하고 있어 유수 등에 의한 침식작용에 취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의 성벽은 무너진 상태이며, 산발적으로 크고 작은 석재가 성벽의 주변 협곡을 따라 퇴적되어 있다.

3구간 성벽의 높이는 단면측점 S-S'지점 약 2.4m, T-T'지점 약 3.6m, U-U'지점 약 3.4m, V-V'지점 약 3.5m W-W'지점 약 2.3m, X-X'지점 약 2.4m, Z-Z'지점 약 2.3m, a-a'지점 약 1.7m로 측정되었다. 3구간 성벽과 주변에서는 무문, 격자문, 선문 계통의 기와 등이 수습되었다.

4) 4구간 : 북쪽 성벽 구간(단면측점-a~h)

4구간은 북쪽 성벽구간으로 추정 건물지⑤로부터 추정 동문지까지에 해당한다. 4구간 성벽의 진행 방향은 단면측점 a-a'지점에서 능선 평탄면을 따라 동쪽으로 회절하여 단면측점 e-e'구간 주변까지 진행하



[그림 18] 4구간 성벽 대표 단면도(d-d'지점)

다가 추정 치성 주변까지 북동쪽 방향으로 이어진다. 추정 치성에서 남쪽으로 회절한 성벽은 추정 동문지와 이어진다.

4구간의 성벽은 단면측점 c-c'지점 주변부터 e-e'지점까지는 내외협축의 흔적이 확인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석축은 유실되어 토성과 같은 형태로 남아 있다. 특히 성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따라 많은 석재가 흩어져 있고,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어 유실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c'지점에는 현재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등산로는 경사도가 21° 정도로 나타나는데, 다른 지점보다 경사도가 낮은 지형을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큰 성밀골로 이어지며, 큰성밀골의 서쪽으로는 소옥천이 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점은 문지로 추정될 개연성은 있으나 등산로가 지나가는 성벽 주변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성내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에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므로 경작활동을 위한 농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 지점을 따로 문지로 추정하지는 않았으나 농로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시기의 유물 등 주변의 정황들로 미루어 문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면측점 f-f'구간과 g-g'구간의 성벽은 3구간의 성벽과 마찬가지로 지형의 경사를 최대한 이용하여 성벽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석축의 흔적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잔존하는 석축의 성벽은 내탁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특히, 단면측점 f-f'주변은 급경사면(36°)의 성벽에서 비교적 완경사면(15°)의 성 바깥으로 이어지면서 유실된 석재가 집중되어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 구간을 제외하면 추정 치성으로 이어지는 다른 구간은 경사도가 30° 내외로 나타나는데, 비교적 급한 경사면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동쪽의 회절부는 1구간과 2구간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은 편으로 큰성밑골에서 계곡부를 따라 동문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곳에 치성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구간 성벽의 높이는 단면측점 c-c'지점 약 2.3m, d-d'지점 약 1.6m, e-e'지점 약 1.1m, f-f'지점 약 3.7m g-g'지점 약 2.5m로 측정되었다.

4구간 성벽의 주변에서는 선문계 기와편을 비롯하여 장경호편, 백자편 등이 지표상에서 확인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모두 잔존하는 성벽의 외벽 주변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들 유물 중 장경호 편은 옥천 금구리 신라 고분군의 편년안에 따르면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6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3. 성내시설 현황

1) 추정 문지

추정 문지는 모두 3곳이 확인되었다. 문지는 성벽이 단절되어 있고 문구부가 확인되는 등 출입의 흔적이 확연히 관찰되거나 성의 바깥쪽으로 크고 작은 골짜기를 통해 주요 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한 지점, 주변으로 방어시설의 흔적이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1) 추정 동문지

추정 동문지는 산성의 동단에 위치한다. 문지의 남쪽으로는 기존의 조사에서 2중의 차단벽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양상이 확인되었다. 문지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회절한 성벽은 추정 치성을 지나며 다시 서쪽으로 진행되는데, 문지와 추정 치성 사이의 성내에 추정 건물지④가 위치하고 있다. 남쪽의 2중의 차단벽과 추정 치성, 추정 건물지④ 등은 성문을 방어하기 위

한 시설로 구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서 추정 동문지를 통과하여 연결되는 남쪽의 계곡부는 죽향리 부근으로 연결되며, 북쪽으로 연결되는 계곡부는 큰성밑골로 연결된다. 특히 비교적 경사가 심하지 않은 큰성밑골에서 동문을 통해 성내로 진입하려면 추정 치성과 추정 건물지④를 지나야 하므로 성문의 입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정 동문지를 지나는 성벽은 'ㅁ'자형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비교적 얇게 문구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문지를 통하여 성내로 진입하면 1구간의 성벽을 따라 좁은 평탄지가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추정 건물지④와 접하고 있다. 잔존하는 문구부의 너비는 약 3.2m 이다.

(2) 추정 남문지

추정 남문지는 산성의 남쪽을 감싸는 성벽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1구간과 2구간 성벽에서는 가장 해발이 낮은 지점이다. 문지의 서쪽으로는 성벽이 성 안쪽으로 내만하였다가 성벽 단면측점 K-K' 지점에서 돌출되며 1구간의 남동쪽 구간에서와 같이 2중의 차단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추정 남문지를 통하여 성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진입로를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보고(차용결 외, 2003, 81쪽)에서는 추정 남문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작은 계곡부로부터 성벽 밑쪽으로 돌아 들어오게 되어 있어 성벽 위에서 문으로 접근하는 적은 쉽게 방어할 수 있게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정 남문지를 통과하여 연결되는 협곡은 남동쪽으로 진행되어 삼양리로 연결된다. 추정 남문지의 주변으로는 경사가 매우 급한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 진출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협곡에는 현재도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동쪽으로는 삼양리 토성, 서쪽으로는 삼거리 토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연결된다. 현재 이 교통로는 성왕로로 불리고 있는데, 성왕로 주변의 소하천

이 동쪽으로는 교동리(구읍지역), 서쪽으로는 소옥천과 연결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교통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정 남문지의 문구부는 ‘凹’자형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인다. 함몰부로 인해 성벽이 단절된 모습이 다른 추정 문지에 비하여 뚜렷하게 식별된다. 추정 남문지와 연결된 성벽은 문구부의 양쪽으로 암반노두가 노출되어 있고, 급경사면을 이루며 다시 성벽과 연결되는 형태이다. 잔존하는 문구부의 너비는 성벽을 기준으로 약 9m 정도이며, 통행로를 기준으로 1.5m 내외로 상당히 협소한 편이다.

(3) 추정 서문지

추정 서문지는 산성의 서쪽, 3구간 성벽구간 중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다. 추정 서문지는 산성 전체에서도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정 서문지와 연결하는 성내 평탄지에는 추정 집수시설이 위치한다.

추정 서문지의 남쪽으로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이 진행되며, 북쪽으로는 서쪽으로 돌출된 능선을 따라 성벽이 조성되어 있다. 북쪽의 돌출부에 위치한 성내 평탄면은 현재 민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의 지형과 입지로 미루어 추정 건물지⑤로 추정하였다.

추정 서문지를 통과하여 연결되는 계곡부는 작은성밀골로 연결되며, 성벽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계곡부를 감싸고 있다. 추정 서문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능선 끝자락에는 추정 건물지⑤와 추정 건물지⑥이 위치하고 있어 작은성밀골에서 문지로 진입하는 적을 방비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작은성밀골을 통하여 소옥천에 이르면 남쪽으로 금구천과 합수되는데, 이 일대는 옥천 분지로 바로 통하는 길목으로 현재에도 4번 국도를 비롯하여 경부고속도로, 성왕로 등이 교차하는 등 여러 갈래의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추정 서문지의 주변으로 넓은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보고에서는 이 평탄지 외측으로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평탄지의 남쪽으로 산성으로 통행하는 길이 나 있어 이곳이 서문지로 추정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현재에도 서문지의 바깥으로 작은성밀골로 향하는 길이 남아 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계곡부의 방향을 따라 배수로도 함께 조성되어 있다.



[그림 19] 옥천 서산성 추정서문지
경사방향분석도

추정 서문지 주변의 경사 방향분석도를 보면 이 일대의 경사방향이 추정 서문지와 그 주변을 통해 소옥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의 보고와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추정 서문지가 수구의 역할을 겸하였거나 주변으로 수구가 있었음을 짐작케한다.

추정 서문지를 지나는 성벽은 ‘凹’자형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인다. 함몰부로 인해 성벽이 단절된 모습이 뚜렷하게 식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정 서문지와

그 주변은 경사방향 분석도에서 나타나는 경사의 방향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유수의 영향을 받으며 침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잔존하는 함몰부의 너비는 성벽을 기준으로 약 2.5m 정도로 확인되었다.

추정 서문지 주변에서는 선문계 기와편과 백자발 등 시기를 달리하는 유물이 함께 수습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유수의 영향으로 상부에서 흘러들어온 유물이 지표상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문지의 주변에 길이 약 90cm, 너비 약 80cm 정도의 석재 1매가 노출

되어 있다. 이 석재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추정 서문지와 그 주변에 건물지의 기초로 추정되는 석렬(추정 건물지②)이 위치하고 있어 성문을 구성하던 시설의 초석 또는 추정 건물지②의 초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문지 주변으로는 성내에서 가장 넓은 평탄지가 입지하고, 그 주변으로도 계단식의 크고 작은 평탄지가 길게 이어져 있다. 서문지 주변에서 수습된 유물의 최대 상한이 삼국 시대(선문계 기와편), 하한을 조선시대(백자발)로 추정한다면 산성의 운영시기가 사료와 지리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문지 주변의 평탄지와 건물지는 그 규모와 평면상 배치형태로 볼 때, 이성산성에서 확인된 목곽고 또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군창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림 19)의 경사방향분석도를 보면 서문지 주변으로 경사방향이 집중되는 지형적 특징이 확인되는데, 이 주변에 집수시설이 입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문지 주변으로는 성내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서산성이 운영되는 동안 서문지가 주요 출입문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추정 치성

雉 또는 雉城은 성벽의 바깥으로 돌출시켜서 쌓은 성벽으로 상부에 짐은 없고 女牆이 있는 구조를 일컫는다. 치성은 평면 형태가 반원형인 경우 곡성, 성문 앞을 가리어 둘러쌓은 형태는 옹성으로 구분된다(문화재청 성곽연구회, 2007).

옥천 서산성에서 확인된 추정 치성은 추정 동문지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진행하던 성벽이 서쪽으로 회절하는 북동쪽 끝단에 성벽의 바깥으로 돌출시켜서 성벽이 쌓여진 흔적이 확인되어 치성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치성의 평면형태는 반원형, 치성의 형태는 곡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추정 치성은 추정 동문지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서쪽으로 회절하는 성벽구간보다 약 1m 정도 낮은 단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여담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추정 치성의 내부 평탄면은 길이 7.1m, 너비 5.8m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내부 평탄면의 바깥으로는 북동쪽 방향으로 돌출부를 형성하였다. 이 돌출부는 서산성의 북동쪽으로 진행되는 능선 정상부 사이의 골짜기 부근에서 마무리되며, 이 골짜기는 서쪽으로 큰성밑골과 연결된다. 추정 치성의 남쪽으로는 서산성의 동벽을 따라 추정 동문지에 이른다. 특히 큰성밑골에서 진입하는 적은 추정 치성의 아래를 돌아야만 추정 동문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입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치성의 외벽은 석축의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4구간 성벽의 단면측정 g-g'지점 주변에서는 일부 석축의 흔적이 확인되나 이 석축이 추정 치성의 외벽까지 이어졌을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산성의 동벽에서 추정 치성으로 이어지는 성벽도 추정 치성에 도달하기 전에 석축 흔적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된다.

3) 추정 건물지

건물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성내 평탄지 중 3곳을 추정하였다.

건물지의 추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성내 평탄지 중 방형과 같은 일정한 구획이 보이는 곳이다. 이 외에도 주변에 건물과 관련된 유물이 노출되어 있는 곳, 초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의 석재가 노출되어 있는 곳 등을 주요 기준으로 건물지로 추정하였다.

(1) 추정 건물지①

추정 건물지①은 서산성의 북동쪽 정상부 평탄면 해발 197m~198m 사이에 위치한다. 산성의 정상부를 따라 조성된 등산로가 추정 건물지를 북동동-남서서 방향으로 관통하고 있다.

추정 건물지①은 평탄면을 따라 장방형의 기단 석렬이 확인되어 건물지로 추정하였다. 장방형의 기단시설은 단면형태가 ‘凸’ 자형 주

변으로 기와편과 석재가 산재한다. 특히 북쪽의 일부구간은 석축 기단이 확인되는데, 경사면을 보강하여 평탄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축의 흔적으로 보인다. 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방형의 할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가장 하부에는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기초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로는 길이 40cm, 너비 30cm 내외의 석재를 평적하여 석축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나 경사면을 따라 유실되어 정확한 구조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잔존하는 석축의 높이는 약 1.1m 이다.

추정 건물지①의 중앙부에는 타원형의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표로부터 높이는 약 30cm 정도이다. 타원형으로 조성된 단은 정확한 용도를 특정할 수 없다. 추정 건물지①의 내부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선후관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번 보고서에는 그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기단 석벽의 외곽선을 중심으로 측정한 추정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약 17m, 너비 약 9.5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동-남서서(N-71° -E) 방향이다. 추정 건물지①의 중앙부에 위치한 타원형의 단은 길이 약 5.3m, 너비 약 4.7m이다.

추정 건물지①과 주변에서는 토기편을 비롯하여 수기와 등이 수습되었는데, 청해파문의 기와편과 백자저부편이 함께 수습되어 주목된다. 유물의 노출 양상으로만 보았을 때 추정건물지①은 조선시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추정 건물지①에 대해서는 봉수일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3, 60쪽) 건물지 주변의 지표상에서 연조나 소토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에 나타나는 주변 봉수(환산봉수, 월이산 봉수)와의 이격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봉수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추정 건물지①은 서산성이 『세종실록지리지』와 『호서읍지도』에 나타난 성황당산 석성과 연관 지어지기 때문에 성황당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추정 건물지②

추정 건물지②는 서산성의 서쪽 계곡부 평탄면 해발 147m~148m 사이에 위치한다. 추정 건물지②의 서쪽으로 추정 서문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연접하여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평탄지가 위치한다.

추정 건물지②는 평탄면을 따라 장방형의 기단 석렬이 확인되어 건물지로 추정하였다. 기단 석렬은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나 평면상 장방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연접한 추정 집수시설 쪽으로 ‘凹’ 자형의 함몰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장방형의 기단 석렬의 단면형태는 ‘凸’ 자형으로 기단 석렬의 구성은 작은 석재가 쌓여 돌출부를 형성하고 있다. 사용된 석재는 할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이사이에 기와편도 포함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단 석렬의 기초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앞서 추정 서문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정 건물지②의 주변으로 평탄지가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성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입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렬 사이에서 청해파문 기와편이 수습되었으므로 추정 건물지②는 조선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군창과 관련된 기록이 주목된다. 물론 지표에서 수습된 기와만으로는 이 건물지의 용도를 특정할 수는 없겠으나 앞서 살펴본 기록과 건물지의 입지 등으로 미루어 군창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잔존하는 석렬의 높이는 약 0.8m 정도이며, 기단 석렬의 외곽선을 중심으로 측정한 추정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약 25m, 너비 약 11m, 장축방향은 북동동-남서서(N-82° -E) 방향이다.

(3) 추정 건물지③

추정 건물지③은 추정 남문지를 통해 성내로 진입하면 서쪽으로 보이는 평탄지에 위치하며, 이 지점은 서산성의 전체 현황에서 마안형

의 안부를 조성한 곳에 해당한다. 추정 건물지③은 해발 164m~165m 사이에 위치하며, 기존의 보고에서 이곳은 원래 밭으로 경작되었던 곳이라 하며, 작은 연못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03년 조사 당시에는 잡목과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평탄한 지형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그림 19)의 경사방향분석을 보면 추정 서문지를 향해 북향 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에서 언급한 대로 남쪽에서 추정 서문지 방향으로 향하는 경사면 상에 위치한 평탄지로 연못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건물의 초석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 1매가 평탄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평탄지 곳곳에 기와편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어 건물지로 추정하였다.

추정 건물지③은 다른 건물지와는 다르게 평면형태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장방형에 가까우다. 잔존하는 추정 건물지③의 규모는 길이 약 41m, 너비 약 19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동-남서서(N-79° -E) 방향이다.

(4) 추정 건물지④~⑥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지 중 먼 곳을 조망하거나 적군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장소를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추정 건물지④~⑥은 주변보다 해발고도가 높아 먼 곳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성내 능선 정상부 평탄지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추정 건물지④는 산성의 동쪽 정상부에 위치한다. 추정 건물지④의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추정 동문지, 북쪽으로는 추정 치성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길이 약 8m, 너비 약 7m 정도로 확인되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56° -E)방향이다. 추정 건물지④의 외곽으로는 동쪽으로는 죽향리방면, 서쪽으로는 큰성밑골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북동쪽 방향으로는 이 골짜기를 경계로 하

는 능선이 이어진다.

추정 건물지⑤는 서산성의 북쪽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지점은 사모봉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현재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추정 건물지⑤의 주변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는 성벽을 따라 남쪽 성내에 추정 집수시설과 추정 서문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민묘의 활개를 포함한 평탄면 전체의 규모는 길이 약 24m, 너비 약 14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80° -E)방향이다. 추정 건물지⑤의 외곽으로는 지형적으로 급경사면을 이루는 사면을 이용하여 성벽이 조성되었다.

추정 건물지⑥은 서산성의 서쪽 능선 정상부 평탄면에 위치한다. 이 곳에는 능선 평탄면을 따라 약 3곳 정도의 참호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까지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추정 건물지⑥은 참호의 개설로 일부가 파괴된 흔적이 보이지만 참호가 설치된 지역을 제외하면 비교적 평탄면이 길게 이어져 있어 평면상 세장방형 형태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추정 건물지⑥의 규모는 길이 약 37m, 너비 약 6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동-남서서(N-78° -E)방향이다. 추정 건물지⑥의 바깥으로는 점차 해발고도가 낮아지는 능선이 서쪽으로 이어지며 이 능선의 말단부는 소옥천과 연결된다. 북쪽과 남쪽으로는 비교적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작은성밑골과 이어지는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추정 건물지④~⑥은 높은 곳에서 먼 곳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곳에 입지한다. 따라서 조사단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추정 건물지④~⑥에서 감제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해 보고자 가시권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정 건물지④~⑥에 대한 가시권 분석에 앞서 서산성의 가시권 분석에서 가시범위는 군사측면에서 육안으로 목표물 실체의 정보획득에 유효한 거리, 감시반경 4km(이판섭, 2006, 75쪽)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추정 건물지④~⑥에 대한 가시권 분석은 서산성과 상호 시계가 확보된 삼양리 토성, 삼거리 토성과의 거리가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으

므로 추정 건물지에서 바라본 가시 영역을 최대 500m로 설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진행하여 가시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시권 분석의 정확한 지점은 다음 표에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시점의 높이는 1.6m로 설정하였다. 강제지점은 각 추정 건물지④~⑥ 내부의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4] 옥천 서산성 추정 건물지④~⑥ 가시권 분석 포인트

구분	해발 고도	세부 좌표	
		X	Y
추정 건물지④	약 197m	250904.5169	413061.4776
추정 건물지⑤	약 152m	250657.6605	413030.1169
추정 건물지⑥	약 183m	250605.4436	412830.7612
좌표계		투영법:TM, 타원체:GRS80 투영원점:중부원점, EPSG:5186	

서산성의 가시권 분석 결과, 서산성에서 보이는 시계는 산성의 남동쪽 옥천분지 내부를 조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금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충적지를 조망하는데 유리하며, 주변의 관방유적 중에서는 삼거리토성, 삼양리 토성, 삼성산성 방향으로의 시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서쪽으로는 환산성 보루 주변까지 가시영역이 확보되지만 환산성 너머로는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 건물지④~⑥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추정 건물지④는 죽향리 방향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곳에 위치한다. 추정 건물지④의 입지는 죽향리 방향 외에도 북동쪽 능선 정상부로 이어지는 작은 골짜기와 큰밀골로 이어지는 골짜기의 조망에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추정 건물지④에서는 서산성의 남동쪽으로 국수봉에서 내려오는 남동향의 사면을 따라 보은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조망되어 주목된다. 현재 이 골짜기는 성왕로-37번 국도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교통로가 고대에도 사용되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교통로는 곧장 금강으로 연결되

며 금강을 건너면 안내면을 지나 보은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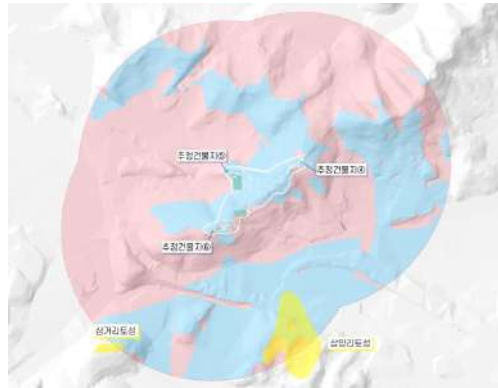
[그림 20] 옥천 서산성 가시권 분석도

로 판단된다.

추정 건물지⑥은 옥천분지의 초입부에 해당하는 금구천과 소옥천이 합수되는 지점의 동쪽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입지한다. 이 지점은 옥천분지 내 평탄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삼거리토성, 삼양리토성의 시계가 중복되는 곳이다. 추정 건물지⑥에서는 삼양리토성과 삼거리토성을 모두 조망할 수 있으며, 이 3개소의 관방유적이 공통으로 바라보는 지역은 북동-남서 방향의 산맥이 금구천과 소옥천으로 단절되는 지점이다. 남서쪽의 삼성산에서 북동쪽의 국수봉으로 연결되는 산맥은 옥천분지를 보호하는 자연경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비교적 험준한 산지 사이에 하천으로 인하여 단절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이 지역은 옥천분지로 들어오는 북동쪽의 주요 출입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추정 건물지⑥은 추정 건물지④와 큰성밀골도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건물지⑤는 큰성밀골로 이어지는 골짜기와 작은성밀골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추정 건물지⑤에서는 성내의 다른 추정 건물지 등을 비롯한 성내가 함께 조망된다. 추정 건물지⑤는 특히 북서쪽의 소옥천 주변과 대전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충적지를 조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이처럼 추정 건물지 ④~⑥ 3곳은 서로의 시계를 공유하며 사방을 방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추정 건물지⑤는 추정 건물지④와 추정 건물지⑥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북쪽 방향을 중심으로 감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 건물지④와 추정 건물지⑥은 주로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서산성의 서쪽으로는 시야의 확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단점을 삼거리토성과 삼양리토성으로 보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추정 건물지 3곳의 가시범위를 종합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옥천 서산성 추정 건물지④~⑥
가시권 분석도

이상과 같이 추정 건물지④~⑥은 주변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곳에 입지하고 있어 망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서산성의 가시범위를 특정한다면 주로 남동쪽의 옥천분지 안쪽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거리토성, 삼양리토성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옥천분지의 북서쪽 출입구에 대한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서산성은 주변의 산성과도 연관을 가지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시권 분석만으로는 산성의 운영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서산성의 가시권이 전체적으로는 주변의 교통로가 조망되는 가운데 북서쪽 보다는 남서쪽의 옥천분지 안쪽을 감제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은 참고할만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4) 추정 집수시설

옥천 서산성에서는 집수시설 1곳이 추정되었다. 성내 집수시설은 생활용수를 모으는 기능, 소화기능, 성내 유속을 감소시켜 성벽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성내 시설로 성곽의 운영주체나 기능에 따라 성내 능선 상단부터 하단까지 다양한 위치에 입지한다(전혁기, 2017, 91-94).

추정 집수시설은 기존의 보고에서는 서문지 주변의 넓은 평탄지를 연못지로 추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그림 19)에서와 같이 경사 방향을 고려하면 추정 서문지 주변으로 물이 흘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고와 같은 지역을 추정 집수시설로 추정하였다.

추정 집수시설은 산성의 서쪽 해발 147~148m 사이에 위치한다. 추정 집수시설의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추정 건물지⑤가 위치하며, 남쪽으로 연결하여 추정 건물지②와 추정 서문지가 경사방향을 따라 위치한다.

현재 집수시설의 내부는 잠목으로 우거져 있으나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집수시설 주변의 지형을 보면 동쪽에서 30° 내외의 경사를 이루며 서쪽 방향의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서는 추정 건물지⑤ 주변에서부터 45° 이상의 급경사면이 남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남쪽 또한 평탄지를 제외하면 경사도 약 15° 정도의 완경사를 이루며 추정 집수시설과 그 주변이 성내에 가장 큰 골짜기를 이룬다. 경사는 (그림 19)에서와 같이 추정 서문지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점차 낮아지는데 산성의 정상부에서 골짜기를 따라 흐른 물이 추정 집수지에서 가두어졌다가 추정 서문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정 서문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구를 겸하거나 주변에 수구가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 집수시설의 평면형태는 길이 약 51m, 너비 약 32m이며, 장축 방향은 북북서-남남동(N-6° -W) 방향이다.

V. 맺음말

옥천 서산성은 ‘관산성 전투(554)’와 연관되는 ‘관산성’의 비정지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옥천 분지의 관문으로서 고대 옥천 지역 핵심 방어 산성으로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간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곽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옥천 서산성과 옥천지역에 대해서는 『삼국사기』·『고려사』 등의 문헌기록과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와 고지도 등에 고시산군-관성군-옥주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서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그 존재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지도에서는 서산성을 중심으로 가화역·증악역·토파역·화인역 등과 같은 역과 환산봉수, 월이산봉수와 같은 봉수지, 적등진 등이 표시되어 있어 육로와 수로 교통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옥천군과 서산성이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옥천 서산성의 주변 마을에 남아 있는 지명과 전설 등은 이 지역을 두고 각축을 벌였던 신라와 백제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리산, 환산 등의 지명과 구진베루, 진터별, 말무덤이, 서화천 등이 대표적이다.

옥천 서산성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데, 성곽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삼양리 토성과 삼거리 토성, 옥천 옥각리 유적과 옥천 금구리 신라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옥천지역에는 고대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방유적이 46개소가 확인되고 있어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가 옥천지역을 놓고 벌인 치열했던 각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옥천 서산성 정밀지표조사는 옥천 서산성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서산성의 둘레는 약 1,025m이고 성내 면적은 31,727㎡이다. 성벽은 모두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40m 간격으로 단면측점을 설정하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성벽의 단면형태를 파악하였다. 성내 시설로는 문지 3곳을 추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건물지 6곳, 치성 1곳, 집수시설 1곳을 추정하였다. 성내시설은 가시권 분석, 경사방향분석 등을 통하여 산성의 일반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가시권 분석을 통해 서산성의 감제권이 옥천분지를 향하고 있으며, 주변 500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양리 토성, 삼거리 토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천 서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은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기와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백자편과 기와편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확인되었다. 이는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대조해 보았을 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이 운영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자료이다. 성내 평탄지와 규모, 주변의 관방유적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고대에는 치소성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이번 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표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현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성의 초축시기, 성벽의 정확한 구조, 성내시설로 추정된 다양한 시설들의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지표조사의 성과를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 및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향후 옥천 서산성의 조사·지정·정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사의 성과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3.11.14, 심사개시일: 2023.11.30, 게재확정일: 2023.12.12.]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충청북도, 1997, 『소옥천, 금산천, 금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 김병남 외, 2010, 「백제 성왕대 관산성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 김봉근·박철수, 2022, 「충북 옥천 지역 고대 성곽유적의 현황과 과제」, 『제3회 관산성 학술대회』, (사)옥천향토사연구회
- 김봉근, 2023, 「옥천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현황 및 향후과제』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옥천 산계리 28번지 유적』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 문화재청 성곽연구회, 2007, 『한국성곽용어사전』
- 양기석, 2009,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논총』 1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양주동, 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이관섭, 2006, 「삼국시대 산성의 감시반경에 대하여 : 삼국시대 산성 배치의 체계성 검토를 위한 예비작업」, 『호서고고학』15, 호서고고학회.
- 전혁기, 2017, 『고대 성곽 집수시설의 성격과 변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옥천 옥각리 유적』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옥천 금구리 신라 고분군』
- 차용걸 외, 2009, 「관산성 관련유적의 현상과 보존방향」, 『중원문화논총』 1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차용걸 외, 2003, 『신라·백제격전지(관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옥천군-』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0,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부지 내 유적』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0, 『옥천 이성산성 2차 시굴조사 약보고서』

【Abstract】

The result of Precise Archaeological Surface Survey of Okcheon Seosansung Fortress

Seo, Moonyoung

(Chungbuk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Seosansung Fortress located in Okcheon is widely postulated to be the historical site of the “Gwansansung Fortress”, renowned for its connection to “Gwansansung Battle” in the year 554. Positioned as the principal entryway to the Okcheon basin, this fortress stands as a highly significant relic, esteemed for its role as a pivotal defensive bastion within the ancient Okcheon region.

This study examines the geographical placement and environmental context of Seosansung Fortress in Okcheon. Through an 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and geographical documentation, it briefly delves into the rationale behind proposing Okcheon Seosansung area as the plausible location for Gwansansung Fortress. Additionally, the study introduces the archaeological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revelations brought forth by the precise archaeological surface survey carried out at Seosansung Fortress in Okcheon.

Based on the this survey, the perimeter of Seosansung Fortress is approximately 1,025m, with a surface area of 31,727 square meters. This survey method divided the fortress wall into four segments, with cross-sectional measurement points strategically placed at intervals of 20 to 40m, which allowed the

discernible cross-sectional shape of the wall to be identified.

Regarding the infrastructure within the fortress, three gateways, six building structures, one defensive castle, and one water collection facility are presumed to be present. The assessment of these fortress facilities involved a meticulous examination encompassing visibility analysis and slope direction analysis to gain an overarching understanding of the fortress's condition. Notably, the visibility analysis validated the military domination of Seosansung Fortress, overseeing the expanse of the Okchen Basin. This positioning showcases an interconnected dynamic with the nearby Samyangri Earthen Wall Fortress and the Samgeori Earthen Wall Fortress, situated within a 500-meter radius, indicative of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rtifacts excavated from Seosansung Fortress in Okcheon span diverse historical epochs, ranging from earthenware and roof tiles indicativ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white porcelain and roof tiles characteristic of the Joseon Dynasty. Aligning these findings with records in the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Records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and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ed Edition of the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this evidence suggests that the fortress has been operational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the Joseon Dynasty. Given the expansive flatland and size of the fortress, this exploration presents a compelling indication that it might have functioned as the Chiso(治所) Fortress in ancient times.

<p>Keywords : Okcheon, Seosanseong Fortress, Gwansanseong,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 Walls, Silla, Baekje, King Seong, Chupungryeong Pass</p>
--